다락방 모임 나눔지 (10/4 주간)

환대의 사람, 기쁨의 하나님 (창 18:1-15)

일상 나눔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 보세요.**
찬송 하기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본문 읽기	**창세기 18:1-15**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환대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도 환대의 사람, 환대의 공동체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1. 나그네를 환대하는 중에 하나님을 영접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도 장막 문에 앉아 있었고(1절), 낯선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민첩하게 달려나가 겸손히 상급자에게 올리는 예를 표하며 초대합니다(2-5절).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달려가서' 자신이 직접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요리하게 하고, '엉긴 젖과 우유'를 꺼내서 잔치 수준의 식탁을 준비하고, 자신이 직접 식탁 옆에서 시중을 듭니다(6-8절). 완벽한 환대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거친 사막과 목초지를 오가며 양과 소를 치는 유목민들이나 상인들은 언제 어디서 위기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환대는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유목민과 상인들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통상적인 환대를 뛰어넘는 극진한 환대를 실천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했던 이유가 여호와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낯선 나그네들이 누구였는지 나중에 밝혀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 13:2)라며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초대 교회는 예배와 기도만큼 열심히 환대를 실천했습니다. 교리문답서 《디다케》는 "할 수 있는 대로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도와주라"라고 권면하고, 교부 크리소스톰은 가장들에게 "환대의 임무를 자기 종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집에 오는 사람들을 직접 반기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감독(장로)의 최우선 덕목으로 환대를 꼽습니다(딛 1:8,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왜 이렇게 환대를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처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시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바로 (탕자가 아니라) '환대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막 한복판에서 환대를 통해 여호와 신앙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메마른 세상 한복판에서 환대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 환대의 사람에게 기쁨의 자녀(이삭)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환대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기쁨의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시중을 받으며 음식을 먹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10절). 앞선 할례 언약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막 문 앞에 있던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11-12절). 하나님은 사라의 숨은 생각까지 정확하게 읽으시며 아들(이삭)을 주실 것을 확증하십니다(13-15절). 아브라함과 사라의 회의적인 웃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쁨의 웃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에서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환대였습니다. 환대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웃음을 되돌려 주십니다. 환대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을 우리도 기뻐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기쁨을 낳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웃게 하십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고 배타성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환대를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대는 성도의 표지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실천이고 세상을 거스르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에게 환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은 우리에게 집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과 교회가 기쁨의 웃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환대를 적극 실천할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맞이하는 친구들이 있는 영적인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에게 영적 고향을 회복시켜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냉대하며 분노하던 첫째 아들이 아니라, 사방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웃을 환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삭들, 기쁨의 자녀들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온 사방에서, 목마른 영혼, 목마른 세대가 주님께 나아와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게 되는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나눔 포인트

1.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의 나그네를 어떻게 환대합니까?(2-8절)
그가 알지 못하고 환대했던 나그네가 사실 누구였습니까?(1절)

1.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2. 성경은 환대에 대해 무엇을 말씀합니까?(히 13:2, 딛 1:8)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 13: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
딛 1:8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3.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천사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9-10절)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4.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에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12-15절)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합심 기도	**말씀을 기억하며 / 후원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를 위해 / 다락방과 교회를 위해**
모임 마무리	**광고 /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 주기도문**